

국경을 넘은 연정 소고(小考)*

- 에도시대(江戸時代) 통속소설을 중심으로 -

고 영 란**

(e-mail : youngrankoh@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후류시도켄덴(風流志道軒伝)』의 경우 |
| 2. 『신색오권서(新色五卷書)』의 경우 | 4. 나가며 |

키워드 : 江戸時代(Edo era), 通俗小説(popular novels), 恋情(love), 新色五卷書(Shinshoku Gokansyo), 風流志道軒伝(Huryu Shidoukenden)

1. 들어가며

21세기는 정보의 초월적 공유와 교통의 편리성 증대로 전지구가 하나의 문화권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랑이 전개되고 국제적인 가정이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되어 가기도 한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과 가정을 이룬 인물들은 한국과 일본의 고전문학에서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17-18세기에 그들과 같이 월경한 인물들이 눈에 띠기에 즐고에서 다룬 바 있다.¹⁾ 이를 통해 작가를 포함한 한일 양국 사회가 17-18세기 당대에 개인의 월경을 통한 국제결혼과 그에 의해 생성된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국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간략한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고전문학

1) 즐고(2016) 「17-18세기 한일 문학 속 월경(越境)과 결혼- 『최척전』, 『강로전』, 『김영철전』 과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 『진세쓰나니와노유메(珍說難波夢)』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6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55-176.

고찰의 대상이 된 조선의 작품들에는 명(明), 청(淸) 교체기를 전후하며 변화되어 간 이민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예컨대 작품에서 월경한 조선 남성의 결혼은 동정적으로 묘사되었던 반면, 남겨진 이국의 부인이나 자식은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김영철전』의 호인(胡人) 부인과 청국에 남겨진 아들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만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줄고를 통해 17-18세기의 월경한 조선 남성의 사랑과 국제결혼을 그린 작품 속에서, 명, 청 교체 이후 중화에 대한 변화된 의식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하겠다. 즉 조선의 조정으로 표상되는 지식인층이 지녔던 호인에 대한 의식은 조정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해갔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작품들에서는 월경한 남성의 결혼보다도 새롭게 탄생한 가족과 그 2세들의 가능성이 주요 서사기재로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 작품은 일본 여성과 명나라나 조선의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적인 2세와 월경인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묘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일본사회가 조선 사회보다도 혈연적 정통성에 덜 집착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국제적인 2세와 월경인들의 가능성에 일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경을 넘은 월경인들이 등장하는 18세기 전후의 일본 작품 속 이국인식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예컨대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1653-1725, 이하 지카마쓰)의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1715)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초반, 청과의 무역을 통해 일본사회는 이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되었는데,²⁾ 나아가 세계지리서, 지도, 백화사전류 등 외국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적들의 출판 및 유통이 활발하여 이국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국, 특히 대만에 관한 정보를 얻은 작가 지카마쓰가 『고쿠센야갓센』을 집필할 수 있었다.³⁾ 이와 같은 『고쿠센야갓센』은 중국, 조선 등에 비해 일본이 우월하다는 대외의식이 묘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⁴⁾ 여타의 연구들도 유사한 의견

2) 김성은(2002)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에 나타난 대외의식」 『日本文化学報』 제1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98-110.

3) 한경자(2014) 「近松の浄瑠璃における台湾への関心-『唐船噺今国性爺』を中心に」 『일본학연구』 제4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31-159.

4) 최관(2008) 「정성공(鄭成功)과 동아시아-지카마쓰(近松)의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74권 2호, 한국일본학회, pp.331-338.

을 피력한다. 또한 명으로 대표되는 중화의 질서를 추종하면서도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풍속을 강요하고 민족적 혼종성을 긍정한 작품이 바로 『고쿠센야갓센』이라고 한다.⁵⁾ 즉 『고쿠센야갓센』의 선행연구를 통해 18세기 전후, 일본사회는 충(忠)으로 표상되는 무위(武威)의 세계에서 일본적 화이사상(華夷思想)을 정립해가며 일본우월의식을 문학작품에서 묘사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카마쓰의 작품 중에서도 『다이쇼칸(大職冠)』(1711)의 경우, 당(唐)으로 대변되는 조선에 대한 경쟁적 의식이 묘사되어 있었고,⁶⁾ 지카마쓰 한지(近松半二:1725-1783) 등의 『야마시로노쿠니치쿠쇼즈카(山城の国畜生塚)』(1763), 『텐지쿠토쿠베사토노스카타미(天竺徳兵衛郷鏡)』(1763)는 일본과 당나라 양국의 선린우호가 묘사되는가하면 임진왜란이 조선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점⁷⁾에서 월경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일본 작품에 반드시 일본 우월의식만이 묘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18세기의 일본작품 중에서 월경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작품의 성격과 작가의 입장에 따라 묘사된 이국인식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줄고에서 다루지 못한 18세기 전후의 일본 통속소설 중에도 국경을 넘은 일본 월경인의 연정이 종종 묘사되는데, 이는 일본사회가 월경인의 삶과 감성에 관심을 갖고 문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조선에서 월경인을 다룬 문학작품이 더 이상 집필되지 않은 경우와는 상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줄고의 후속작업으로서 '국경을 넘은 연정'을 그린 18세기 전후의 일본 통속소설을 살펴보고, 당대 일본사회의 다양한 이국인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18세기를 전후한 일본문학의 일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당대 일본인의 월경과 연정에 연동된 이국인식을 분석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5) 황소연(2018) 「동아시아 세계의 화이(華夷)의 관련 양상-오삼계(吳三桂)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53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271-294.

6) 朴麗玉(2011) 「지카마쓰의 조루리 작품과 조선통신사-『大職冠』 追考-」 『日本文化論叢』 제11집, 대한일본문화학회, pp.61-66.

7) 한경자(2009) 「지카마쓰의 조루리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日本研究』 제40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p.197-214.

2. 『신색오권서(新色五卷書)』의 경우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8)는 일본 전국에서 횡횡했던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가 도래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문학계에서도 서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가 유행했는데, 특별히 통속소설 우키요조시(浮世草子)는 작가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1642-1693, 이하 사이카쿠)가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1682)을 출판하며 비롯되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호색과 연정을 노골적으로 그린 호색물(好色物)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사이카쿠를 뒤이어 우키요조시를 대중화하는 데에 일조한 인물로는 야쇼쿠 지분(夜食時分: ??-??)⁸⁾, 에지마 기세키(江嶋其磧:1666-1735, 이하 기세키), 니시자와 잇푸(西沢一風:1665-1731, 이하 잇푸) 등을 들 수 있는데, 잇푸는 연극 대본(正本)을 다루는 서점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으며 우키요조시의 출판 및 대중화에 이바지한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다.⁹⁾ 나아가 잇푸는 교토(京都)의 하치몬지야본(八文字屋本)¹⁰⁾을 이끈 기세키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작품을 집필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¹¹⁾ 이와 같은 잇푸의 처녀작 『신색오권서』(1698)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져 있다. 첫째, 잇푸는 년교 조루리의 대본을 출판하는 가업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년교 조루리에 관심이 많았다. 때마침 서민의 삶을 그린 세화물(世話物) 년교 조루리가 흥행하여 잇푸가 그 흥행에 힘입어 새로운 세화물을 그리고자

8) 野間光辰校注(1966) 『日本古典文学大系91 浮世草子集』, 岩波書店, p.17. 「とはいえ、なお作者夜食時分の正体は明かではない。柳亭種彦は本書を『好色本目録』に著録して、「中の上作にて素人の作るものとも見えず、林鴻等の作歟」と疑を残しているが、(中略)夜食時分は林鴻ではあるまい。しかし俳諧師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は、いろんな点から考えられる。」 이하, 『신색오권서』의 텍스트로 삼는다.

9) 위의 책, p.3.

10) 배우 평판기(役者評判記) 등을 쓰던 기세키는 활동 초기에 교토의 출판사 하치몬지야(八文字屋)의 유명작가였으나, 이윽고 그의 작품이 상업적으로 흥행하자 그 이권 등을 두고 하치몬지야의 주인과 분쟁을 일으킨다. 잠시 아들과 함께 에지마야(江嶋屋)의 이름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나 이 또한 녹록치 않아 다시 하치몬지야와 화해하고 다수의 작품을 출판한다. 기세키를 필두로 몇몇 익명의 작가가 하치몬지야에서 우키요조시를 출판하였는데, 이들 작품을 하치몬지야본이라고 일컫고, 그 수는 우키요조시의 약 3할 이상인 150여 작품이라고 알려졌다.

11) 篠原進校訂(1983) 『叢書 江戸文庫8 八文字屋全集』, 国書刊行会, pp.361-362. 「ただ、西鶴の浮世草子が芸術的側面のみならず、商業的にも豊かな可能性を有していたということは、認識しておいてよいだろう。西鶴没後の浮世草子は専ら後者が強調され、西鶴模倣の時代を迎える。(中略)浄瑠璃作者や俳諧師の余技という枠を越えられなかった錦文流、北条団水、月尋堂、青木鷺水。こうした混迷を打ち破って出てくるのが、大阪の本屋作者西沢一風であり、それに触発された京都の八文字屋なのである。」

했다.¹²⁾ 둘째, 당시에 발생한 호색과 관련된 오대(五大) 사건, 사고를 그리려 했다.¹³⁾ 셋째, 사이카쿠 작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1686)의 구성을 답습하여 한 권당 한 사건을 그리려고 했다.¹⁴⁾ 그런데 선행 연구는 『신색오권서』 제4권이 월경한 인물의 '국경을 넘은 연정'을 그리고 있는 점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색오권서』가 당대 실화를 각색하였다는 사실과 일화의 전거 및 영향관계에 주목할 뿐, '국경을 넘은 연정'을 통해 이국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색오권서』의 제4권에 묘사된 구체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 및 고찰하여, 당대 일본인의 월경과 이민족과의 연정을 통한 이국인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신색오권서』 작품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은 교토(京都)에 사는 농부의 딸 마사(正)가 가난때문에 유녀(遊女)가 되었는데, 어릴 적 동네 친구이자 치정을 나눴던 조조(長蔵)와 해후하여 사랑을 위해 야반도주의 길에 오른다. 그러나 돈이 궁했던 조조는 주인집 아들을 살해하여 처형되고, 남자에 질린 마사는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간다. 제2권은 여성 춤꾼 산카쓰(三勝)와 한시치(半七)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위해 동반자살을 한 실화가 각색된 것이다. 제3권은 소주로(惣十郎)와 오키치(お吉)가 신분을 숨기고 각자 승려와 비구니로 살아가다가, 오키치가 임신을 하자 소주로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오키치를 살해한 사건이 각색되었다. 제5권은 승려들과 치정을 나눈 자매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자 승려들은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결국 사실이 탄로나서 승려들은 불교의 사자들 손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과응보의 일화다. 이 모든 일화는 실화를 각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⁵⁾ 주목할 것은 그들의 연정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

12) 長谷川強(1960) 「元禄末年の浮世草子-西沢一風を中心として-」, 『国語と国文学』, 37卷8号, 至文堂, p.24. 「彼の演劇に対する関心は深く家は正本屋を業とし、若い時より浄瑠璃を好み、(中略)本書は世話狂言流行の気運に刺激を受けた事は十分に考えられる。つまり「新色」の称は多分にかかる演劇色の参与によって支えられるものであったのである。」

13) 위의 책, pp.30-31. 「従って本書の題号は、これこそ当世好色の人情・風俗を最もよく代表する、五大事件を取り扱った五巻の書という意味において、名づけられたものであろう。五大事件とは、本書刊行に先立つ僅々四五年以内に起った、殺人・心中・刑死事件である。そのいずれもが、主人公の「色好み」に端を發し、「色の迷い」ゆえに不幸な最期を遂げ、殺人の大罪を犯すに至るのである。」

14) 井上和人(2017) 「『新色五巻書』という結節点：西鶴から一風、そして近松へ」 『関東学院大学人文学会紀要』136号, pp.173-177. 「一風の『新色五巻書』が西鶴『好色五人女』にならうことは、すでに定説といってよい。実際にあった恋愛事件に取材、五巻五冊を各五巻五章に分ち、一巻につき一件の事件を配する。」

15) 텍스트, pp.31-37.

거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신색오권서』 제4권의 대강을 살펴보자. 제4권 1장의 제목은 “조선국은 정의 향구(朝鮮國は情の湊)”이고, 목차는 “아이와 같도다 조선인의 가슴,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는 인마단의 기세, 기념품으로 보내는 능라와 윤자 비단(あだなしや唐人の乳房 思ひの底叩き人馬丹の勢 形見に送る紗綾・綸子)”¹⁶⁾이라고 적혀있다. 사이카쿠의 우키요조시가 그러했듯이, 잇푸의 『신색오권서』 또한 각 장의 제목과 목차에 앞으로 전개될 대강의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를 보면 제4권 1장은 조선의 향구가 배경이 되고 조선인의 가슴이나 인마단 등 연정과 관련된 소재가 이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략) 서쪽 지역 33국을 돌고 돌아 그 끝은 이키, 쓰시마. 작은 지방이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풍성하다. 특히 남성은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지 않고 남색을 즐기는 듩직한 젊은이들이 많으며 호색의 세계로서 대단한 곳이어서, (중략) 부산항 근처의 사자의 계곡, 몸 떨리는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과연 정절을 지키는 곳의 문화라고하여 이곳을 본 적 없는 사람은 부러워한다. 원래 조선 사람들이 이 향만에 배를 대고 당나라 물건을 일본에 중개하여 날로 번창했다. (쓰시마의) 후추라는 곳의 선원 중에 (이름은) 구보야마 주에몬이고 본격으로 액운을 겪는 전체의 나이인 스물다섯 되는 외양이 훌륭한 사람이 선발되었는데, 이런 부류의 선원 역할을 하는 이 지방 사람은 모두 머리를 길렀고 두 자루의 칼을 차니 봉록을 받는 자와 다름 없었다. 한해에 한번 조선에 가는 일이 있었던지,¹⁷⁾

위의 밑줄친 “과연 정절을 지키는 곳의 문화라고하여 이곳을 본 적 없는 사람은 부러워한다.”와 같이, 『신색오권서』에서 조선은 정절을 지키는 공간으로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이국인식의 대상인 조선에 쓰시마(対馬)의 선원으로서 주인공 주에몬(十

16) 텍스트, p.463.

17) 텍스트, pp.465-466. 「(前略) 西国三十三ヶ国を廻り廻りて行西の果ては壱岐・対馬。小国なれ共人の心裕(ゆた)かに。殊に男たる者一言の違えず。頼もしき頼母草の若葉枝、茂り数多ありぬるは。大方ならぬ色所にて、(中略) 釜山浦の辺獅子が谷、身震い塚とて今に有由。あっぱれ潔き所の習ひと、国見ぬ人の羨みぬ、もとより朝鮮国の者、此湊に舟の碇を下ろし、唐物共を日本に渡りて売買繁昌の日を増しぬ。府中船乗水主の中に久保山十右衛門とて、年は二十五の盛男の前厄。器量勝れたるを選り出して所の何がし、此類の役目には何茂四方鬘。二つ刀を允され、扶持取る者同然なり。年に一度朝鮮国に行習ひありけるにや。」이하,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다.

右衛門)은 한해에 한번 건너가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 주에몬의 외양은 뛰어난데, 머리가 길고 칼을 차서 마치 녹봉을 받는 무사와 같았으니, 못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다. 이윽고 주에몬이 조선의 부산으로 건너가서 조선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세한 것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실로 색은 조선부터 조선 너머의 저쪽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으렸다. 이 나라의 관습으로 여자는 무릇 가슴을 감추고 이를 들키면 창피해하는 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일이었다. 이 나라의 한쪽에 이부라고 하는 곳은 미천한 남녀가 직물을 짜서 먹고 살았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자 중에 정녀라고 불릴만한 한 여성이 있었다. 능라나 윤자 비단을 짜는 손발의 손톱을 자르지 않았는데, 모습은 일본 여자와 닮았었다. 옷감을 짜서 먹고 살았다. 이런 부류에게는 남자를 좀처럼 볼 일이 없어서 일본인에게 연정을 품어 허리띠를 (일본처럼) 가슴 언저리에 묶는 일이 없고 허리보다 아래는 어쩔 도리가 없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머리빗도 폼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이해하지 못함이 그지없었다. 주에몬은 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지나가는 비가 내리는 외로운 밤에 잠시 여자의 집에서 동침을 한다. 옷섭이나 소매를 당겨도 거절하는 일 없이 히죽하고 웃는 모양, “자네는 여태껏 남편이 없는가?”라고 묻자 말없이 끄덕인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원을 풀어주시게.”라고 말하자 오촌 정도 되는 손톱을 물고 창피해하는 모습, “싫은가?”하고 묻자 답을 않는다. “괜찮은가?”라고 말해도 답을 않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일본인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는지. 우스꽝스러운 것을 웃고, 화나는 일에는 차가운 표정. “그렇다면 아예 이렇게 해보자.”라며 확대가 가서 껴안았는데 싫지 않은 기색. “그럼.”하고 기뻐하며 가슴 언저리에 손을 넣으니, “창피해요, 창피해요.”라며 도망다닌다. 주에몬이 들은 바 있어, “그렇게 도망 다니셔도 이미 가슴을 보았소.”라고 하자, “그렇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드리누워 자려고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¹⁸⁾

18) 텍스트, pp.466-468. 「真事に色はあの国より。あの国のあなた迄も楽しめるものところぞ知れ。此国の習ひにて女たる者乳房を隠し。見つけられなどしては事のふ辱しがる事、所の習ひにてぞありけり。此国の片方理府といへる所には。下管の男女織物して渡世とする。中にも夫なき者の一人住み。貞婦といへる女有けり。紗綾・綸子折手足の爪。切るといふ事なけれど、姿は和朝の女に変わる事なし。機を織て渡世とす。かかる類(たぐひ)は男珍しく、日本人に思ひよる恋の掛帯。胸のあたりに結ぶ事なく。腰より下は葉袋もない仕掛。髪は挽ぎ鬘に油つけず櫛の齒入れず。言葉遣い通じなくしては埒明ぬに極まりぬ。十右衛門此女に思ひよる時雨の留(あめ)。降る夜淋しかりし身の、爰にしばらく仮の夢。襖・袖引いてもびんしゃんとせず。にったりとする顔ばせ「こなたは未夫とてもあらずや」と尋(たづね)し

주인공 주에몬은 말도 통하지 않는 조선의 직물 짜는 여인에게 연정을 품고 다가가고, 조선의 여인 또한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작가가 연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즐길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점, 조선 여인이 손발톱이 긴 것 빼고는 일본 여인과 다르지 않은 외양이라고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점이다. 즉 작가는 분명 일본과 조선의 말이나 관습이 다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연정만은 일본과 조선에서 서로 다르지 않음을 내비추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호기심에서 비롯된 주에몬과 조선 여인의 연정은 일본의 여느 연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유일무이하고 애뜻하게 발전하는 바 묘사되는데, 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주에몬이 곰곰이 생각하자니 “내가 이 나이까지 색에 빠져 왔었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정을 나눈 적이 없다. 특별히 동침한 후에 연정이 상당히 깊어져 돌아가야만하는 고향을 잊고, 밤낮으로 정녀의 일만 생각하게 된 것은 (정력제) 인마단의 위력 때문이리라.” (중략) 잠시 휴가를 얻어 정녀에게 다가가, “내일 아침 일찍 귀국하게 되었소.”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중략) “자, 안주로”라며 윤자, 능라 비단 두 필을 꺼내, “이는 제가 손수 짠 옷감입니다. 제가 그리울 때는 주무실 때 사용하는 담요로라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 인마단이야 말로 우리 조선에 비밀리에 전해오는 것이지만 정을 나눈 기쁨에 마음먹고 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마세요.”라며 건넨다.¹⁹⁾

조선의 여인이 건넨 정력제 인마단 덕분에 주에몬은 거듭되는 방사를 즐겼었는데, 일견 방사만이 목적인 것 같던 두 남녀의 관계는 이별에 이르러 전환된 국면을 맞이한다. 비록 인마단 덕분이라고는 하나 호남인 주에몬이 과거에 비해 조선의 여인에게만큼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눈물

に、物いわずして頷く。「然らば我身の思ひを叶へて給はれ」といふに、五寸ほど有小指の爪を咬(くは)へて辱しがる風情。「厭か」といへ共物いわず。「合点か」といへどもさもなく。ざりとは不詰まりなるものぞかし。日本人の云ふ事合点しけるにや。可笑しき事を笑い。腹立事はすんとした顔。「いっそかうして見ん」と。つつと寄って抱き付共さあらぬ風情。「扱は」と嬉しく乳のあたりへ手をやれば。「赤辱赤辱(らんじょらんじょく・はずかしや)」と云ふて逃げ廻る。十右衛門聞覚たる事の有けるぞ。「何程逃げ給へばとて、もはや乳房は見たる」と云ふに。「扱は左様か。然らばお心まかせ」と仰き、臥てかかるも可笑し。」

19) 텍스트, pp.468-469. 「十右衛門つくづく思ふは「我此年まで色に溺るといへ共。かかる珍敷情に逢ふたる例なかりき。殊に枕交してよりの思ひ振り。中々心深く立戻る国の事を打忘れ。昼夜貞婦が事のみ思ふは人馬丹の威徳にてぞありけり。(中略)「いでお肴」と綸子・紗綾二巻出し、「是はみづから手業に織衣なり。我恋しき時は夜の褥とも召給へ。扱此人馬丹こそ。我朝一子相伝なれ共。情の嬉しきに思ひ変え参らずぞかし。むさと人に伝給ふな」と允(ゆる)しぬ。」

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여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에몬을 위해 스스로 짠 비단 두 필과 정력제인 인마단을 이별의 정표로 준다. 이렇듯 두 남녀는 이별에 이르러서 서로 진심을 다한 연정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선 여인이 보여준 연정의 진정성이 드러나며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다음 제4권 2장에 이르러서다.

제4권 2장에서 쓰시마로 돌아온 주에몬은 조선의 여인으로부터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짓고, 이를 통해 연인을 떠올리며 위로받는다. 그런데 주에몬 앞에 한때 남색의 상대였던 노세 한시치(野瀬半七)가 나타나서 자신의 자결을 도와달라고 한다. 사정인 즉, 자신에게 집착하는 남성 주스케(重介)가 자신을 잡으려 그 동생 구리즈카 시치조(栗塚七蔵)와 함께 쫓아온다는 것이다. 주에몬과의 남색관계 때문에 의리를 지키려는 한시치는 자결하고자 하는데, 그를 뒤쫓아 온 주스케, 시치조 형제는 주에몬과 한시치의 관계를 알게 되어 두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기에 이른다. 때마침 조선의 여인이 준 비단으로 만든 옷이 주스케, 한시치 두 남성의 몸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한시치의 몸을 보호한 후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조선 여인이 품은 연정의 염력이 옷에 옮겨져 주에몬 일동을 곤경에서 구해주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아가 해당 비단옷에 글이 드러나는데, 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정녀의 영혼이 여태껏 연정을 품는다. 남색의 동생뻘인 자가 목숨을 잃으려 한다. 이 때문에 내 앞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과연 정녀의 한결 같은 마음이 옷에 옮겨져 그와 같은 곤경에서 구해준 것이리라.”라고 기쁜 가운데에도 눈물이 흐른다.²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여인의 한결같은 연정이 주에몬과 한시치를 곤경에서 구하고, 그 이유가 비단옷에 글로써 나타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를 깨달은 주에몬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설정과 묘사는 당대 조선 여인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극화한 경우라고 하겠다. 즉 조선 여인의 연정과 그 집념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본 일화를 통해, 적어도 작가 잇푸는 조선이 일본과 동질적인 연정, 혹은 남녀 간의 의리라고 하는 가치가 존재

20) 텍스트, p.474. 「貞婦魂未籠契 男色戯兄第為矢命 故予今取髮盛(ていふがたましいまだちぎりをこむ なんしょくのたはむれにけいていの いのちをうしなはんとす かるがゆへにわれいまはつせいおとる)『扱は貞婦が一心着物に移り。かかる難儀を助けるや』と。嬉しきにも涙。」

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드러나는 이국인식은 배타적이거나 일본 우월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색오권서』의 제4권은 전반부 1, 2장과 후반부 3~5장이 전혀 다른 일화로서 전개되는데, 이 후반부에서 주에몬은 일본의 또 다른 여성과 새로운 연정을 불태우고, 이는 불륜으로 설정되어 두 남녀는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 후반부에서 반슈(播州:현재 효고현)의 항구 마을로 간 주에몬이 지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 동반자살하기에 이르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부 1, 2장의 내용과 결을 완전히 달리 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신색오권서』 제4권의 전반부에서 조선 여인이 묘사된 내용을 단순히 작가의 상상에 의한 골격적 내용으로 평가하고,²¹⁾ 이에 반해 후반부는 『호색오인녀』의 구체적 일화를 각색한 것으로서 후반부의 전거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데,²²⁾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점은 제4권의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며 전혀 다른 소재와 문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연하자면 전반부에서는 일본 남성 주에몬과 조선 여인의 '국경을 넘은 연정'이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애뜻하고 감동적인 것으로 승화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후반부에서 전개되는 일본인 남녀 사이의 연정은 불륜으로 설정하고 비극적 동반자살로 마무리하는 데에는 작가 잇푸의 확연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잇푸는 전반부에서 이국 여성과의 순수한 연정과 그 감동을, 후반부에서 자국 여성과의 불륜을 통한 파국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며 국경을 초월한 연정의 윤리성에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신색오권서』 제4권에서 두 일화를 대비시킴으로써 얻는 효과는 자명하다. 오락을 지향하는 우키요조시이기는 하지만, '국경을 넘은 연정'이 묘사된 전반부의 이야기가 후반부를 통해 보다 감동적인 서사로 대비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선 여인과 조선의 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7세기 후반에 출판된 『신색오권서』는 줄고에서 고찰한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1715)이나 『진세쓰나니와노유메(珍説難波夢)』(1765?)에 앞서 '국경을 넘은 연정'을 긍정적으로 그린 선구적인 작품

21) 텍스트의 해설, 野間光辰, p.37. 「卷四、副題して「対馬藩舟手の一人として、十右衛門が朝鮮に渡海し、そこで朝鮮の女工貞婦なる者と契るくたり(一の一)、勿論作者の作り話であって、その猥雑な描写は他の巻と同じく、この作者初期の作風を示すものであるが、猥雑もここまで至っては、むしろ滑稽である。」

22) 앞의 논문, 「『新色五巻書』という結節点：西鶴から一風、そして近松へ」, p.177.

이요, 이국인의 연정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신색오권서』 이외의 통속소설 중에 '국경을 넘은 연정'을 소재로 한 작품을 살펴보자.

3. 『후류시도켄덴(風流志道軒伝)』의 경우

주지하듯 우키요조시에서는 『신색오권서』와 같이 특별히 연정과 호색이 구분되어 묘사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호색일대담』의 마지막 장면인 제8권이 그에 해당된다. 제8권에서 주인공 요노스케(世の介)가 배를 타고 여성만 산다고 하는 상상의 섬인 뇨고가시마(女護ヶ島)로 간 것은 다양한 연정의 경험에 염증을 느낀 주인공이 월경을 통해 궁극적인 자유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정력제) 지황환 쉰 항아리, (정력제) 여희단 스무 상자, (여성용 성 기구인) 공 삼백 오십 개, (남성용 성 기구인) 네덜란드 실 칠천 가닥, (중략) (최음제인) 산초 약을 사백 봉지, (낙태 도구인) 우슬 뿌리 천 개, (낙태약인) 수은, 목화 열매, 고춧가루, 정행 백 근,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사를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²³⁾

이처럼 에도시대 문학에서는 첫 우키요조시인 『호색일대담』에서부터 연정과 호색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월경과 방사, 나아가 정력제를 통한 이국인과의 연정이 연동되고 상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즉 호색, 혹은 연정의 무국적성이라는 소재는 첫 우키요조시에서부터 이용되고 있기에, 앞서 잇푸의 『신색오권서』 제4권에서와 같이, 일본인의 월경과 이국에서의 연정은 연동되고 상상되어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외의 우키요조시 작품에서는 월경과 연정이 함께 묘사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이카쿠를 뒤이은 기세키의 데뷔작인 호색물 『게이세 이로자미센(傾城色三味

23)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対訳西鶴全集一 好色一代男』, 明治書院, 1975, p.287.

「地黄丸五十壺、女喜丹二十箱、りん玉三百五十、阿蘭陀糸七千すぢ、(中略) 山椒葉を四百袋、えのこづちの根を千本、水銀、綿実、唐がしらの粉、午粉百斤、其外色々品々の責道具をととのえ、」

線』(1701)은 삼대(三大) 도시인 교토, 오사카(大阪), 에도(江戸)란 공간에서의 연정을 묘사할 뿐, 여타 호색물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은 연정'이 묘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정의 무국적성을 주된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는 장르를 달리한 히라가 겐나이(平賀源内:1728-1780, 이하 겐나이)의 『후류시도켄덴(風流志軒伝)』(1763)을 들 수 있다.

겐나이는 소위 일본의 다빈치라고 불리는데,²⁴⁾ 본초학자(本草学者), 지질학자, 난학자(蘭学者), 의사, 식산사업가(殖産事業家), 작가, 서양화가, 발명가 등 다방면에서 천재적으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후류시도켄덴』과 같은 해에 출판된 『네나시구사(根南志具佐)』 전편 등을 통해 그 인기와 더불어 한층 더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앞의 작품을 일본 문학사에서는 단기본(談義本)²⁵⁾이라고 칭한다. 단기본은 관서지방(關西地方)에서 유행한 우키요조시를 대신하여 골계를 섞은 교훈적 소설로서 원래 사원이나 신사의 승려들이 설법을 위해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는 점차 에도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8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1684-1751)의 엄격한 교호의 치(享保の治)²⁶⁾가 있었음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²⁷⁾

『네나시구사』 전편에는 서문이 두 개 있는데, 작가 겐나이 스스로가 쓴 서문에서 그는 중국, 인도, 네덜란드, 조선의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24) 平野威馬雄(1989) 『平賀源内の生涯—甦る江戸のレオナルド・ダ・ビンチ』, 筑摩書房, p.1.

25) 野田寿雄編(1995) 『日本近世小説史 談義本編』 勉誠社, pp.25-29. 「談義は、もともと寺院に発生したものである。寺院の和尚の説法、それが談義であるが、この談義は享保期に非常に流行した。各寺院で一般庶民の教戒に加えて、自宗の宣伝をすることがはやり、人々も慰み半分で各宗の談義に参加したものである。この談義はやはり享保期に書かれた「民間省要」「享保世説」、すこし後の宝暦期の「武野俗談」などの随筆に悉しい。(中略)逆にまた政治が刺激になって、享保の治に沿う談義や教訓を興したとも言える。」

26) 요시무네는 근검절약과 윤리적 행실을 권장하고 막부제정을 확보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나아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부호의 성장을 견제하고, 에도의 막부 비호 하에 쌀 증매상(札差)의 성장을 도모하여, 문운동천(文運東遷)이라고 불리듯 문화적으로는 물론, 정치경제적으로도 중심을 관서지방에서 에도로 옮기며 에도가 흥하게 하였다.

27) 앞의 책, 『日本近世小説史 談義本編』, pp.13-20. 「この八文字屋の凋落は、もちろん店の行き詰づまりもあつたであらうが、それよりも宝暦期以後、江戸に談義本の興隆があり、それに株を奪われたということが大きな原因であつたであらう。(中略)すなわち、談義本は宝暦期を背景にして確かに小説の変革ではあつたけれども、突如としてその変革を成し遂げたのではなく、浮世草子の先蹤を追いつつ、なだらかな変革をおこなつたという事であつて、そこに小説史の断絶は無かつたと言えるであらう。(中略)事は小説ばかりではなかつた。人形芝居も歌舞伎も、関西では衰退を見せ、みな江戸に移つて来た。すべては宝暦期が境であつた。文運東遷、まことに新しい現象であつた。」

삶과 욕망은 차이가 없음을 지적한다.²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국인들의 삶과 욕망이 일본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작가의 이국인식이다. 주지하듯 켄나이는 나가사키(長崎) 유학 및 조선통신사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 네덜란드, 조선 등 이국을 이해하고 배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켄나이가 『네나시구사』 전편 서문에서 이공간에서의 삶과 욕망이 일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에, 그의 또다른 작품인 『후류시도켄텐』 속에 '국경을 넘은 연정'이 묘사되었다고 해도 부자연스러울 것은 없다. 이에 『후류시도켄텐』에 묘사된 월경인의 양상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그 제비가 책상 위에 알을 하나 낳고 정처 없이 날라가버렸다. 아사노신은 알을 들고 '둥지라도 있다면 넣어주어야지.'하고 생각하는 중에, 그 알이 두 개로 쪼개져서 속에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 나왔다. '옛날에 대나무 베는 할아버지가 대나무 속에서 얻은 가구야 공주와 같은 것인가?'하고 잘 관찰하는 중에 쑥쑥 커져서 적당한 정도의 크기가 되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였고, (중략) 아사노신도 정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녀의 손을 잡고 매우 조용히 가산 근처로 걸어갔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복숭아 꽃 아래 돌들이 놓여있는 곳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으로 함께 들어갔다.²⁹⁾

헤이안 초기(平安初期)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 최고(最古)의 소설로서 유명한 『다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의 주인공 가구야 공주처럼, 작은 여성이 알에서 나와 『후류시도켄텐』의 주인공 아사노신(淺之進)을 이공간으로 이끄는데, 그가 월경해 온 여성과 교류하면서 작품이 시작된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즉 『후류시도켄텐』은 월경과 이공간에서의 교류를 전제

28) 中村幸彦校注(1961)『日本古典文学大系 55 風来山人集』, 岩波書店, p.37. 「自序 唐人の陳紛看、天竺のおんべらぼう、紅毛のすっべらぼん、朝鮮の口차리구차리、京の男の髻そらして、あのおしゃすことわいな、江戸の女の口紅から、いまいまい、はっつけ野郎などと、其詞は違へども、喰ふて糞して寝て起て、死んで仕舞ふ命とは知ながら、めったに金を慾がる人情は、唐も大倭も、昔も今も易ことなし。」 이하, 『네나시구사』 및 『후류시도켄텐』의 텍스트로 삼는다.

29) 텍스트, pp.162-163. 「彼燕机の上に卵を一つ産落て、何ちともなく飛行けり。浅之進は卵を取り上げ、巢もあらば入れなんと思ふ内、彼卵二ツに破て、中より人の形したるものぞ出たりける。昔竹採の翁が、竹の中より取り得たる赫奕姫(かぐやひめ)の類ならんかと、打ち守りて居る内に、すすくとおほきになりまきりて、忽能程の人になりて、其形のけそうなる事、世に類なく、(中略)浅之進も庭におりたちけるに、彼女手をたづさへ、いとづかに仮山のあたりへ歩行、咲乱たる桃花の下、石なんどのありて、其中に小き穴の有けるが、其穴の中へ伴ひ行たり。」

로 시작되는데, 이윽고 아사노신이 들어간 곳은 도원경(桃源境)과 같은 이공간으로서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접대를 받다가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난 아사노신은 신선으로부터 깃털 부채를 받아 묘력(妙力)을 얻게 되는데, 이 부채를 부치며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생각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깃털 부채를 선사한 신선은 아사노신에게 다음과 같이 인정(人情)을 이해하여 속세에 도움이 되는 인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이 때 아사노신은 앞으로 나와 말씀 올리기를 "겸허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젊어 인정을 자세히 모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 때 후라이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깃털 부채를 주고 말하기를, (중략) "이것을 가지고 천지간을 다니며 여러 나라의 인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저 인정이 닿는 곳은 색욕을 첫째로 하니, 여러나라의 유곽 등을 놀러 다녀야 할 것이다."³⁰⁾

위에서 주목할 것은 인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색욕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아사노신은 인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곽 등 호색과 관련된 곳을 경험하기 이른다. 이에 앞서 작중에는 다음과 같은 언설도 확인된다.

서적의 이음새 사이에 사는 벌레, 속옷의 이음새 사이의 사는 이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음양의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는 것이 나중에 교합하는 것은 하늘과 자연의 도리이기에, 훗날 젊은이가 (『고사기』의 이자나기, 이자나미처럼 할미새 정도를 선생님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³¹⁾

일본 전국은 물론 이국으로 인정을 배우러 갈 아사노신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하기에 앞서, 작가는 인정의 궁극적인 형태인 교합이 모든 생물에게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재차 주지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 아사노신이 앞으로 월경하여 이국에서 이민족과 교합을 한다고 해도, 이는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작가는 굳이 사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

30) 텍스트, p.170. 「此時淺之進進み出て申しけるは、『謹んで先生の教を受。しかれども我若年にして人情に精(くわし)からず、此事如何してしかるべき。』其時風来仙人手に持し羽扇をあたへて曰く、(中略)「是を以て天地の間を往来し、諸国の人情を知るべし。只人情の至る所は、色慾を第一とすれば、諸国の色里なども遊行すべし。」

31) 텍스트, pp.183-184. 「書物のお目にも生ずる白魚、肌着の縫合の花見虱まで、いきとし生けるもの皆陰陽の形あり。形ありて後交(まじり)をなすこと、天然自然の道理なれば、其後の若イ者は、つがもない、背令ぐらいを先生には頼まず。」

에 나올 아사노신과 이국인과의 '국경을 넘은 연정'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도리에 맞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인다.

한편 인정을 이해하기 위해 아사노신은 일본 전국의 유곽은 물론, 팔다리가 긴 사람의 나라, 몸에 구멍이 나있는 사람의 나라 등 신체상에 기이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결국 문화와 가치관이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와 같은 이국 편력이나 아사노신의 신체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점, 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등의 발상은 선행연구를 통해 걸리버 여행기, 중국의 유선굴(遊仙窟), 일본의 사이카쿠나 기세키 작품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는데,³²⁾ 그가 조선에서 피로한 심신을 회복하고 청나라에 가서 삼천 궁녀를 만나 이국 여성과 연정을 나누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장면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청나라 건륭제가 살고 계신 북경에 이르자 변화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중략) 후궁에 가서 둘러보니 삼천 명의 궁녀가 화장을 곱게 하고, (중략) 아사노신도 마음이 혼란해져 성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후궁 한쪽에 숨어 밤마다 궁녀들의 침소로 숨어 들어가는데, 어느새 소문이 돌아³³⁾

작중 깃털 부채의 묘력으로 모습을 숨긴채 수많은 청나라 궁녀와 연정을 나누는 아사노신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기 때문인지, 위와 같이 간략하게 묘사되는 데에 그치고 만다. 이 아쉬움을 보완하듯, 『후류시도켄텐』

32) 텍스트의 해설, 中村幸彦, pp.15-16. 「この書は当時、浅草奥山で評判の舌耕家、深井志道軒を主人公にかり、それが諸国遍歴の経験を姿にして、当時をうがち諷した談義本の一である。(中略)この書の遍歴物の形態も、ガリバー旅行記との類似で問題となるが、彼が想を得たと思われるものを、いくつか列記して見よう。小道を通過して仙境に入るは桃花源記、美女の案内するのは、やはり遊仙窟によるものであろう。どこか似通った風俗遊仙窟が既出版されていた。国内での遍歴物は仮名草子以来珍しいことではないが、浅野進を異国に出したのが、源内の創意として、その国々は、彼の机辺にあったはずの和漢三才図会や増補華夷通商考に悉くのっている。また後宮に入る一条は、江嶋其磧以来、色々の書が出た豆男本、女護島は好色一代男などの趣向であった。が、いずれにせよ、源内の小説では、最も構成に努力した作であるといつてよい。」

33) 텍스트, pp.200-206. 「かく様々の苦勞艱難、世界中の国々嶋々、残る所なく廻りければ、羽扇の妙ありといへども、元氣も足も勞れければ、朝鮮に至つて、人參のぞうすいを喰ふ事二月ばかり、又足を休めんに、くつきやうのことありとて、夜国に寝ること半年余にして、草臥も直りければ、また羽扇に打ち乗りて唐土へところざし、清朝の主乾隆帝の住み給ふ北京になん至りけるに、繁華詞にも及ぶべからず。(中略)後宮に至りて打ちながむれば、三千人の官女紅粉をいろどり、(中略)浅野進も心乱て城外に出る事をしらず、後宮の隅にかくれて、夜な夜な官女の聞へぞ忍びけるが、いつとなくその噂聞へければ、」

의 마지막 장인 제5권에서는 아래와 같이 뇨고가시마로 월경한 아사노신의 연정이 자세하게 묘사된다.

처음으로 회생한 느낌이 들어 섬을 향하여 노저어 다가가니, 이 섬은 뇨고 가시마라고 하여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만 사는 나라다. 아이를 낳고자 하면 일본 쪽을 향하여 허리띠를 풀러 바람을 맞아 임신하고 또 여자 아이를 낳는다. (중략) “중국에도 일본에도 기생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된 바에야 백여 명 되는 우리가 모두 논의하여 기생집처럼 가게를 내고 연정의 도리를 상업으로 삼아야겠오.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귀천고하와 상관없이 가진 돈만큼 갖고 찾아올 터이니 서로 원망할 일이 없을 것이오. 이리 하는 것은 어땡소?”라고 하니, (중략) 남자 기생을 사서 놀고자 신분의 고하 상관없이 (가게가) 복적 거리니,³⁴⁾

위의 설정은 주지하듯 『호색일대담』의 제8권에서 주인공 요노스케가 향한 뇨고가시마의 설정을 각색한 것이다. 『후류시도켄텐』에서는 풍랑을 만난 아사노신과 청나라 군역들이 뇨고가시마에 도착하였지만, 일동은 뇨고가시마 여성들의 성화에 못이겨 남자 기생이 되어 여성들의 욕망을 채우게 된다. 남자 기생이 된 일동은 이윽고 진허(腎虛)로 전원 사망하지만, 아사노신만은 살아남아 하룻밤에 쉰 번 이상 여성들과 동침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환언하자면, 이국의 여성들 또한 돈을 내고 밑줄친 바와 같이 ‘연정의 도리’를 경험하는 존재로서 작가는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화되어 있기는 하나 월경한 아사노신과 이국 여성들의 연정이 작중에 인정받고 있으니, 이 또한 『신색오권서』에서 잇푸가 조선 여인의 연정을 일본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이국인과의 연정 또한 일본인 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후류시도켄텐』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런데 『후류시도켄텐』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확인된다.

34) 텍스트, pp.209-215. 「初めて蘇生たる心地にて、嶋を目あてに漕寄れば、此嶋は女護が嶋とて、男は一人もなくして、女ばかり住める国也。子を産まんと思ふ時は、日本の方に向かひて帯をとて、風を請くれれば、懐胎して又女子を産む。(中略)唐にても日本にても、女郎屋といふ事あれば、此上は私共百余人の者申合せ、女郎のごとく店を出し、情の道を商ふべし。しかる時は此国の人、貴賤上下のわかちなく、金次第にて来るべければ、互に恨そねみもなし。此儀如何」と申しければ、(中略)遊男を買ひて遊ばんとて、上を下へとこみ合て、」

(중국은) 법도가 영망이기에 성인이 출현하여 가르친 것이다. 일본은 자연스럽게 인의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인이 출현하지 않고 태평한 것이다. (중략) 이 때문에 천자 중에 천자다운 사람은 온 세상에 더이상 없다. 중국 법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풍속에 따라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해악이 된다.³⁵⁾

인간의 삶과 욕망이 일본이 아닌 이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가 겐나이가 위와 같이 중국보다 인의예지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일본의 정치문화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일견 이국과 일본의 삶 및 욕망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던 『네나시구사』의 언설과 그 맥락을 달리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연정에 국한된 언설이 아니라, 인의예지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문화적 우월성을 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후류시도켄텐』은 에도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고도 성장기를 이루었던 17세기를 지나 안정적으로 자국의 가치를 돌아보게 된 18세기의 작품으로서, 이국을 상대적으로 의식하며 국학(国学)을 통해 일본 고유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작가 겐나이는 일본 고유의 가치를 높이 산 국학자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1697-1769)³⁶⁾의 문하생으로서도 활약하였기에, ‘국경을 넘은 연정’을 묘사하며 이국인과의 연정은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의 정치문화와 가치가 이국의 그것, 즉 주자학적 정치문화와 가치에 비해 우월함을 강변하는 입장에서 위의 언설을 전개했다고 보인다. 즉 잇푸보다는 이국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상대적인 자국의를 겐나이가 갖게 되었음을 『후류시도켄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에도시대 일본인의 이국인식을 ‘국경을 넘은 연정’을 그린 통속소

35) 텍스트, p.217. 「不埒千万なる国ゆえ、聖人出て教へ給ふ。日本は自然に仁義を守る国故、聖人出ずしても太平をなす。(中略) 夫故にこそ天子の天子たるものは、世界中に双国なし。唐の法が皆あしきにはあらず、されども風俗に応じて教へざれば、又却って害あり、」

36) 『만엽집(万葉集)』 등의 고전 연구를 통해 고대 일본인의 정신을 연구하고 와카(和歌)의 혁신에 공헌했다. 그의 작업은 주자학의 도덕을 부정하고 일본 고전에 보이는 고래의 일본 정신을 보다 높은 가치로 위치지우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마부치에게 겐나이가 문하생으로 들어간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설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찰의 결과, 우키요조시 중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은 연정’을 그린 작품으로는 잇푸의 『신색오권서』가 있었다. 『신색오권서』 제4권의 1, 2장에는 일본 남성 주에몬과 조선의 여인이 펼치는 ‘국경을 넘은 연정’이 전개되며 그 애뜻함과 진정성이 묘사되었음에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제4권의 3~5장이 주에몬과 일본 여성 간의 연정이었지만, 그 형태가 불륜이었고 그 결말이 비참한 동반자살이라는 점으로부터 작가가 한 권 안에서 의도적으로 1, 2장의 전반부와 3~5장의 후반부를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가 제4권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일화를 대비시키면서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일까? 이는 후반부에서 묘사된 자국 일본인과의 비윤리적 연정이 결국 파국을 맞이한 데에 비해, 전반부에서의 조선인과의 윤리적 연정이 보다 감동적이었음을 부각시키며, ‘국경을 초월한 연정’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경을 넘은 연정’을 그린 또 다른 통속소설로서는 겐나이의 『후류시도켄덴』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청국의 후궁과의 연정, 뇨고가시마의 여성들과의 연정을 그리며 이국의 삶과 욕망, 나아가 이국인의 연정이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잇푸가 그러했듯이 이국, 이국인의 연정을 크게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다만 『후류시도켄덴』에서는 일본의 정치문화와 가치가 중국의 그것보다는 우월함을 강조하는 측면도 확인하여, 이국인식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과 연동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역설적으로 작가 겐나이는 거시적으로는 일본이 천자의 치세 없이도 자연스럽게 인의예지를 터득하는 정치문화강국이라고 의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연정에 연동되는 이국인식은 잇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에도 중기 일본사회는 대외적인 우월의식을 강화해 가지만, 여전히 연정으로 표상되는 근본적인 인정에 관해서는 이국과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후류시도켄덴』은 『신색오권서』와 같은 맥락에서 묘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쿠센야갓센』을 비롯한 에도시대 일본 문학작품이 왕왕 일본우위의 이국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 ‘국경을 넘은 연정’을 그럴 경우, 이국인의 삶과 감성이 오롯이 부정되거나 폄화되지 않았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에 에도시대 문학에 묘사된 이국인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란(2016) 「17-18세기 한일 문학 속 월경(越境)과 결혼- 『최척전』, 『강로전』, 『김영철전』 과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 『진세쓰나니와노유메(珍説難波夢)』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6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55-176.
- 김성은(2002)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에 나타난 대외의식」 『日本文化学報』 제1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98-110.
- 朴麗玉(2011) 「지카마쓰의 조루리 작품과 조선통신사 - 『大職冠』 追考 -」 『日本文化論叢』 제11집, 대한일본문화학회, pp.61-66.
- 최관(2008) 「정성공(鄭成功)과 동아시아 -지카마쓰(近松)의 『고쿠센야 갓센(国性爺合戦)』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74권 2호, 한국일본학회, pp.331-338.
- 한경자(2009) 「지카마쓰의 조루리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日本研究』 제40권,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소, pp.197-214.
- _____ (2014) 「近松の浄瑠璃における台湾への関心- 『唐船噺今国性爺』を中心に」 『일본학연구』 4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31-159.
- 황소연(2018) 「동아시아 세계의 화이(華夷)의 관련 양상-오삼계(吳三桂)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53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271-294.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75) 『対訳西鶴全集一 好色一代男』, 明治書院, p.287.
- 井上和人(2017) 「『新色五巻書』という結節点: 西鶴から一風、そして近松へ」, 『関東学院大学人文学会紀要』, 136号, pp.173-177.
- 篠原進校訂(1983) 『叢書 江戸文庫8 八文字屋全集』, 国書刊行会, pp.30-31, pp.361-362.
- 中村幸彦校注(1961) 『日本古典文学大系 55 風来山人集』, 岩波書店, pp.15-16, p.37, pp.162-163, p.170, pp.183-184, pp.200-206, pp.209-215, p.217.
- 長谷川強(1960) 「元禄末年の浮世草子-西沢一風を中心として-」 『国語と国文学』, 37卷8号, 至文堂, p.24.
- 野田寿雄編(1995) 『日本近世小説史 談義本編』 勉誠社, pp.25-29.
- 野間光辰校注(1966) 『日本古典文学大系91 浮世草子集』, 岩波書店, p.3, p.17, pp.31-37, p.463, pp.465-467, p.474.
- 平野威馬雄(1989) 『平賀源内の生涯-甦る江戸のレオナルド・ダ・빈치』, 筑摩書房, p.1.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31.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要旨>

 国境を越えた恋情小考
 - 江戸時代の通俗小説を中心に -

高永爛

この研究は当代の恋情に連動する異国認識を理解するため、江戸時代の通俗小説の中で、「国境を越えた恋情」を描いたものに焦点を当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考察の対象として西沢一風の『新色五巻書』と平賀源内の『風流志道軒伝』を取り上げ、研究した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新色五巻書』の第四巻の一、二章では、日本男性と朝鮮女性の恋情が肯定されつつ描かれ、朝鮮もまた恋情において日本と変わりのなり価値がある空間として肯定されていたと見受けられた。第二に、『風流志道軒伝』では清国の宮女、女御ヶ島の女性など異国の女性と主人公の浅之進が枕を共にし、その恋情は至って自然な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た。この点、異国の恋情をも自然なものとして肯定する『新色五巻書』の第四巻の一、二章と大差はない。しかし、同作品の中に政治文化的には日本の優越性が言及されていた。つまり、作家平賀源内は異国の恋情という細部においてはその価値を認めるものの、政治文化という次元になると相対的に日本が優越であると考えていたと理解できる。これは平賀源内が18世紀半ば、自国日本への認識を強めていく国学の思想に傾倒した結果であると見受けられる。逆説的に、政治文化的自国意識とは別途に、恋情においては異国人を肯定的に認識して文学的に描いた『新色五巻書』や『風流志道軒伝』を発見できたことが本研究の意義と言えよう。

 A brief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love described in popular novels
 written in Edo era

Koh, Young-Ran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love described in popular novels written in Edo era. We had a purpose to understand the Japanese recognition and the imagination on the overcoming border and the international love in those days. Thus we analyzed Nishizawa Ippu's *Shinshoku Gokansyo* and Hiraga Gennai's *Huryu Shidoukenden*.

First of all, we could say that the real love of Chosun woman was described in *Shinshoku Gokansyo*, so the Chosun was understood as the same place as Japan where was the value and the recognition of love existed. Second, there were the real love for international women in *Huryu Shidoukenden* as *Shinshoku Gokansyo*. But the Japanese superiority on politics and moralities also was described in *Huryu Shidoukenden* that meant the Japanese recognition on foreign countries were different in what way it was linked.

In conclusion, Japanese sometimes described the international love positively in popular novels written around 18th century, meant they recognised foreign countries in variety.